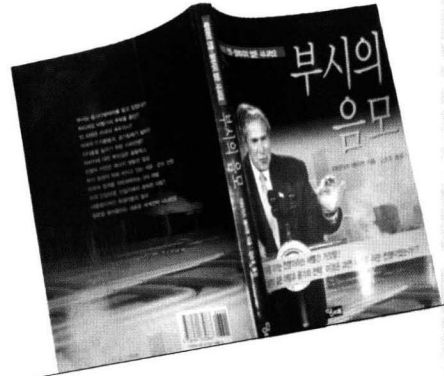


미국 부시 정부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책

김종석 도서출판 아침이슬 대표



영화 <007 어나더데이> 상영 금지 운동. 평화문을 뒤덮은 촛불 시위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촛불 시위 자체 호소.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반미 감정이 일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1980년대 초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반미 운동의 시발점으로 본다면 20여 년 전과 지금의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은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황이 많이 변했다. 미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친미이건 반미이건 그 선택은 개인의 자유일 것이다. 다만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기까지 미국의 본질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결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남을 뿐.

도서출판 당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집요하리만큼 미국 관련 비판서들을 출간해 온 출판사 중 하나이다. 당대의 '반미 도서목록'에 있는 하워드 진의 《오만한 제국》은 미국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날날이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인지 출간 3년째로 접어든 올해도 독자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저자의 탄탄한 논리 전개에 따라가며 긴 호흡으로 미국의 본질을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오만한 제국》은 매우 유익한 책이다. 당대의 또 다른 책 《부시의 음모》는 짧은 호흡으로 현재의 부시 정권의 본질을 단박에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책이다. 추측컨대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담겨 있는 내용은 그 의미가 남다른 책이다.

저널리스트 출신인 이 책의 저자 이타가키 에이켄은 냉정한 눈으로 9·11 테러,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진실을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한반도에도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부시 정권이 탄생하기 직전에 미국은 현재의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이 작성한 이른바 <아미티지 보고서>를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유럽에서는 앞으로 20~30년 동안 큰 전쟁을 생각할 수 없으나, 아시아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잠재적인 전쟁터로 네 곳을 꼽았다. 그 네 곳은 한반도, 대만해협, 인도네시아, 인도, 아시아 대륙이다.

저자는 이 지역들이 지리적으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부시 정권이 '자원쟁탈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카스피해 연안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석유·천연가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부시 정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가는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여 석유가격 지배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행동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널리스트 출신인 이 책의 저자 이타카키 에이켄은 냉정한 눈으로 9·11 테러,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진실을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한반도에도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야 하고, 이를 구실로 미군 기지를 전진배치시킴으로써 중국을 협공하겠다는 것이 부시 정권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부시 정권이 석유·군수·건설 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예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9·11테러 이후 부시는 빈 라덴 체포를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이미 초토화시켰고, 국제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와 전쟁 이후 군사적 충돌 무대를 한반도로 옮기려는 부시 정권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저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전쟁경제’에 매료된 대통령으로 부시 정권을 석유·군수 마피아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주장은 부시가 미국의 재벌 기업 록펠러 재벌과 로스차일드 재벌에게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계 석유 천연가스 자원을 지배하는 록펠러 재벌은 미국의 백인기독교 보수의 본류(백인 앵글로색슨계, 반시오니스트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로스차일드 재벌은 유대(유대계, 영국 시오니스트파) 계열이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부시는 바로 ‘2대 재벌의 황태자’였고, 그들의 후견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자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재임중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였다.

앞서 살폈듯이 부시 대통령은 석유·군수 산업 기업들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 산업에 국방예산을 쏟아부어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 또는 그와 유사한 분쟁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IT 거품경제 붕괴로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실업률 증가로 인해 정권의 기반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요소도 잠재워야 한다. 그러기에 부시에게 전쟁은 단숨에 모든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특효약인 것이다.

이 책 《부시의 음모》는 이렇게 세계 평화 유지라는 ‘가면’을 쓴 미국의 정치·경제·언론이 일치단결해 ‘제국’의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 꾸민 음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지 반세기가 되었지만 그들의 본질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20여 년이 되었을 뿐, 앞으로 미국의 본질을 더 자세히 알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 사이 <007 어나더데이> 같은 영화가 몇 번이고 나올 터, 그렇다면 거짓을 꿰뚫어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때로는 차가운 머리일 것이고, 때로는 뜨거운 가슴일 것이다. **■**

김종석 1965년 강진 출생. 1994년부터 3년 간 월간 <말>의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도서출판 아침이슬 대표이다.